



야간작업 불밝힌 영산강 승촌보

28일 영산강 6공구 승촌보 공사현장. 6월 홍수 전에 가물막이 철거 등 1단계 공사를 끝내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환하게 불을 밝힌 채 고정보 야간공사에 이뤄지고 있다. 승촌보의 현 공정률은 26.4%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선 5기, 광주일보의 4대 제안

고질적인 ‘뒷거래’ 결국은 혈세 낭비

실는 순서

- 1 주민과 소통하라
- 2 낮은 관행 깨뜨려라
- 3 의회는 견제하라
- 4 일자리를 만들어라

#1. 광주시 서구청 직원 오모(44)씨는 지난해 9월 고위 간부 임모(57)씨를 찾아갔다. 그가 임씨 집 앞에서 불속 내민 것은 현금 3000만원. 그는 사무관(지방 5급) 승진자로 내정되자 이 돈을 건넸고 임씨는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직원 임모(57)씨도 4급 승진을 앞두고 2000만원을 내놓았다. 이들은 직위해제되고 구청장은 구속됐다.

#2. 서울 경관조명업체 ㈜나이토피아 관계자는 지난 3월 군수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넸다. 요

구사장은 해남군이 발주한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것. 이 업체 대표 남모(51)씨는 또 여주시 경관조명공사 수주를 위해 3억원을 모아 고위 간부에게 전달했다. 이 간부는 이 돈 일부를 여주시장 측근과 시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지역사회의 인사·공사 관련 병폐가 얼마나 고질적인 것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례들이다. 각종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먹고 발주 및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가 하면 인사 청탁과 관련한 뇌물 범죄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당선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2명 가운데 8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2면으로 계속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전남 6·2 선거사범

440여명 입건 전국 최다

광주·전남지역의 6·2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예상된다. 특히 광주·전남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과열 혼탁양상을 보여 불법·부정선거 최대 지역이란 오명을 썼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6·2 선거를 전후로 이날 현재까지 입건된 전국의 선거사범은 총 2300여명에 이른다. 또 선거 이후 낙선자 등의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불법 선거에 따른 사법처리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은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범 440여명이 입건됐다. 이는 전국 선거사범의 5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불법·부정선거로 인한 입건자 수가 가장 많았다. 또 광주·전남은 6·2 지방선거는 물론, 민주당 경선과정부터 과열 양상이 빚어진 데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최종 선거사범은 500여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검은 이번 선거를 전후로 선

■6·2 지방선거 지역별 선거사범 입건자수 (28일 현재 잠정 집계)

지역	인원	지역	인원
광주	200명	서울	100명
순천	130명	부산	97명
목포	80명	대구	130명
장흥	30명	대전	60명
전주	70명	울산	60명

(자료:대검찰청)

거사범 200여명을 입건했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30여명, 목포지청은 80여명, 장흥지청은 30여명을 각각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나 수사의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최종 선거사범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순천에 이어 대구가 13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0여명 ▲부산 97명 ▲전주 70명 ▲대전 60명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광주·전남의 선거사범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과열 양상이 빚어진 데다 선거 이후에는 낙선자 측의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광주·전남은 6·2 선거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경선을 전후로 총 19건의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보였다. 또 현재까지 입건된 불법 선거사범 외에도 검찰과 경찰, 선관위 등이 조사 중인 사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무더기 당선 무효 등 거센 후유증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당선 무효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VENICE
GLASS FANTASIA

글라스 판타지아 지상전
▼스키아본 '에토레'(35×30cm)

황홀한 불의 미학...지중해 형상화

이탈리아 베니스 대표 유리 공방인 스키타본(Schiavon) 가문이 선사하는 황홀한 ‘불의 미학’. 1천가지가 넘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을 결집하는 스키타본 가문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작품.

지중해의 맑은 물을 형상화했고, 푸른색과 투명한 유리의 조합을 통해 물살의 움직임을 담아냈다.



알림

‘테마칼럼’ 필진 바꿉니다

광주일보 금요 인기칼럼 ‘테마칼럼’의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경제, 문화, 교육, 건강 등 4개 테마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 필진은 전문 식견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제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바랍니다.



김석주 이사장



김왕복 교수



이무용 교수



노경수 교수

◇김석주(71) 향원당 이사장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수료 ▲전남여자고등학교·광주일고 교사 ▲임자중합고등학교 교장 ▲교육청 장학사 ▲구례고등학교 교장 ▲한국전통문화교육원 향원당 이사장

◇김왕복(55) 국립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아이오와주립대학교대학원 교육학 석사 ▲광주시 부교육감 ▲주미대사관 교육참사관 ▲교육부 교원소정심사위원회위원 위원장

◇이무용(43)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지리학박사 수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 서울마케팅연구센터·도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역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특별위원회 위원

◇노경수(48)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서울대 토목공학과 도시공학전공 졸업, 동대학원 도시공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광주시 도시공사 자문위원 ▲부동산114주식회사 자문위원 ▲전남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

光州日報社

